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에스라·느헤미야·에스터

“이 때를 위함이라”
For such a time as this (에 4:14)

9월 7일~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전도는 우리의 사명, 10월 <총력 전도의 달>

관계성 전도를 시작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기를

“10월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이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광림의 성도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성 전도를 시작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라며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차츰 원래의 믿음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광림교회는 정부 방역지침에 맞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회의 생명인 예배와 성경공부,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
지난 9월에는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성도들의 사랑을 담은 1,000개의 나눔 박스

를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청년부에서도 지난여름 전국 10지역, 100개 교회에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회복 키트'를 전달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 선교에 앞장섰다. 광림교회는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는다는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관계성 전도로 열매 맺어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유양겔리온 전도학교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복음 전도 훈련'을 주제로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의 결과를 각 교구와 연결해 매주 한 번씩 전도 현장에 나가고, 관계성 전도 강의와 간증을 들으며 전도의 동력을 얻어 실제 전도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도한 성도들 대부분은 관계성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전도학교에 참여한 성도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우리 삶의 터전이 곧 전도 현장이지요. 예수님이 날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 계셨듯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찬송으로 힘을 얻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이번 10월, 전도의 달에는 제가 코로나로 무너진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했다.

각 교구에서도 지구장 중심으로 합심중보기도를 한 후 전도 물품을 준비해 관계성 전도와 지역 상시 전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해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

나(With Corona : 단계적 일상회복)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 광림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 코이노니아의 절실함 속에 있다.
이번 총력 전도의 달에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이 가득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를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태복음 4장19절)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부스에게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스는 그 젊은이를 뚫어저쳐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가?” 흥분한 부스의 음성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네는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목적 곧 소명에 대한 궁금증도 갖기 마련입니다. 부르심(소명)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잔잔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다가 점점 그 음성이 분명해질 때도 있으며, 불시에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을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창12:1)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 뒤에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출4:19)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가나안으로 이끄시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신앙의 신비는 곧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순종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단순히 요구나 부탁,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의 약속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으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마태복음 4장 18~22절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삶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있다면 그 소명은 결코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슬픔과 낙심, 좌절과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

해서일 수도 있으며, 사랑과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습관 등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날이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관자요 구원자로서 의지하고 모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셋

째,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한 사람이 부르심, 곧 소명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 혹은 공동체에게 전해집니다. 그 부르심을 공유하면서 서로 같은 소명을 품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일치된 순종이 나타남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소명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움직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형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향한 두 형제의 응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머릿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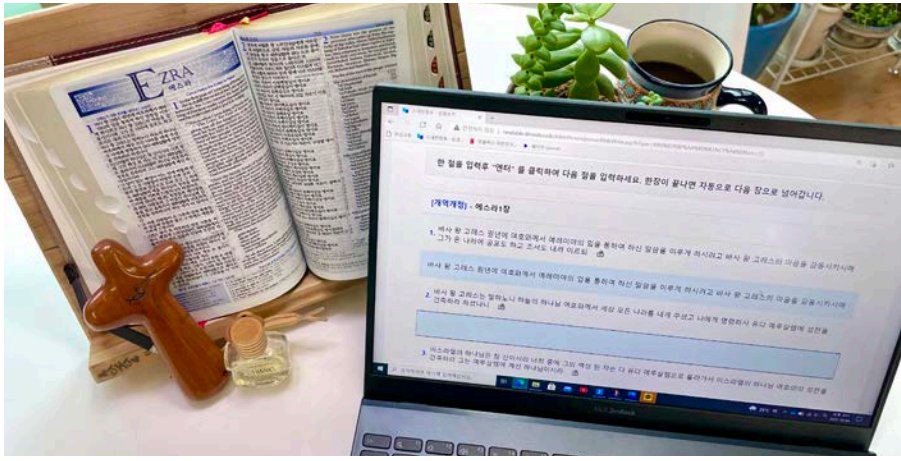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성경필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마음을 담은 신앙고백 <온라인 성경쓰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지친 삶에 살아갈 새 힘을 준다.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머리와 삶 속에 채워 넣으며 광림의 성도들은 성경필사로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성경쓰기에 참여하려면 광림교회 홈페이지(<http://klmc.church>)에 접속해 메뉴바에서 ‘교회생활’을 클릭하고 ‘성경쓰기’로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따라 쓸 수 있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등 어느 기기에서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을 필사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 어느 부분이나 좋아하는 곳부터 선택해서 쓸 수 있고 한 절을 따

라 쓰면 자동저장이 되고 이어쓰기가 가능하다. 개인으로 쓸 수도 있고 속회나 선교회원이 그룹을 만들어 함께 필사할 수도 있다. 성경을 쓰고 난 후 성경통계를 클릭하면 하루와 일주일에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개역개정판 성경뿐 아니라 개역한글판과 NIV 영어성경 필사도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쓰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며 목회선교지원실에서 기념선물을 전달한다. 얼마 전 조지연 성도(광림북교회), 고유신 집사(24교구), 최은령 권사(17교구), 차선화 권사(6교구)가 온라인 성경필사 1회를 끝내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조지연 집사(광림북교회)는 “늘 계획만 세우고 있었는데 교회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느꼈고 필사가 힘든 것만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유신 집사(24교구)는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을 꼼꼼하게 적다보니 말씀이 어느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온라인 필사는 한 줄씩 바로 따라 쓰면 되니 집중이 잘되고 속도감도 있어서 멈출 수 없이 말씀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최은령 권사(17교구)는 “마음먹고 필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집에서 계속 필사에 집중했습니다. 타자 치면서 오다가 많이 났는데 그로 인해 말씀을 여러번 읽을 수 있었고, 성경 속의 보물을 캐며 무뎠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차선화 권사(6교구)는 “기도하면서 신약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신구약 66권 필사를 마치게 되었네요. 성경필사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각조각 알던 성경의 퍼즐을 맞추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손으로 쓰는 성경필사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성경 필사용 규격노트를 사용하여 필사한 후 필사본을 목회선교지원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제본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 12:6)

소현수 기자

포토 뉴스



해사교회 건축 감사장
9월 28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장로회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
10월6일 장로회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에서 주제강연을 하였다



속회지도자교육
화요일 오전 10시, 선교구별로 속회지도자교육이 열리고 있다.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10월 24일까지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 9/28 성령한국 청년집회 설교
- 9/29 웨일즈학교 설교
- 9/30 감리교군선교회 군사역자세미나
- 10/4 총복연회 감신동문 수련회 특강
- 10/5 트리니티성서대학원
- 10/6 장로회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 주제강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변영혜 기자

광림미술인선교회 청년부 ‘물맷돌’ 프로젝트

제5회 청년작가 초대전 - 아리엘(한은선) 개인전



광림미술인선교회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물맷돌 프로젝트로 제5회 청년작가 초대전이 장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의 청년작가에는 한은선(2교구) 성도가 선정되어 아리엘 개인전으로 10월 31일(주일)까지 열린다. ‘물맷돌’ 프로젝트는 기독교미술인 청년작가를 위해 매년 광림미술인선교회에서 전시 지원을 한다. 아리엘 개인전을 하고 있는 한은선 작가를 만나보았다.

Q. ‘아리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Ariel의 뜻은 신의 물방울, 혹은 신의 사자라는 의미로 제가 어릴 적부터 영어이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한은선이라는 배우의 이름이 아닌 작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자 사

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그림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Q. 광림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이 작업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요?

광림교회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섬겼던 교회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광림교회로 이적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 이후로 청년부에서 속장을 해오다 올해 초 1선교구 2교구 속회 속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길을 걸어 가며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 여러 응답과 좌절을 맞으며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기

다름을 전심으로 목상하게 되었고 그 목상의 기간에 한동안 내려놓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언약을 묵묵히 정작하게 기다려 왔던 요셉처럼 저 역시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허락된 기다림을 기쁘게 성실하게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려왔던 그림들을 이번 물맷돌 초대전을 통해서 펼쳐 보이게 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이 전시를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고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의 전시인지요?

사실 2017년부터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워나가며 혼자서 그려오던 그림을 1년에 1,2번이라도 어딘가에 걸 수 있는 기회를 광림미술인선교회의 ‘틀레레게’전을 통해 얻으면서 더 꾸준히 그리고 좀 더 단단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쌓였던 그림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광림미술인선교회에서 물맷돌 전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응답이라 생각하며 이번 전시가 그동안의 기다림을 채워온 작은 열매들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변영혜 기자

내 인생의 말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저희 집 값진 보물을 꼽자면 거실 테이블입니다. 집안 물건 중 제일 비싼 건 아니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셀 수 없는 예배와 축복 기도가 이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7년전 이사 오면서 구입한 이 테이블에서 여섯 분의 부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았고, 매년 다니엘 기도회, 선교회 모임, 속회모임으로 뜨거운 기도와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저녁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들려졌던 건 아닙니다. 이사 오면서 처음 속장을 맡은 저는 속회 예배 인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전 속장님들께 배운 대로 열심히 속회 예배를 준비했지만 참석자는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참석 예정자가 한 명일 땐 속도원이 미안한 마음에 먼저 '집사님, 준비하기 힘드신데 그냥 다음 주에 드릴까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과 내가 같이 예배하려면 뽕뽕하고 불편할텐데, 차라리 속장님 여럿이 모여 드리는 연합속회에 끼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지는 않을까?' 등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속도원 한 명과 드리나 열 명과 드리나 똑같이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참석여부에 상관 없이 당신과 나 둘만 있어도 주님 이곳에 계신다고 전하며 기쁘게 예배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명이 모이든 네 명이 모이든 예배가 늘 은혜로 충만했고, 젊은 엄마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회에서 받은 은혜는 선교회 참여로 이어졌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남편들을 권면해 스테반 선교회도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속회와 선교회를 더 튼튼히 세우자고 지구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4명씩 드리는 속회 4 곳이 매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 속회에서 여러 개의 속회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거실 테이블에서 다시 은혜 넘치는 기도회 모임들이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정성희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에스더 국장)

남선교회총연합회 '따스한 채움터' 배식 봉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선교적 사명 감당



남선교회의 사명은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매년 진행해오던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의 실천은 멈출 수 없기에 지난 10월 5일(화),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를 비롯한 남선교회 임원 10명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했다.

서울역에 위치한 따스한 채움터는 지난 2010년 개소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시설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감리회의 대표적 사회봉사 기관이다. 남선교회 임원들은 200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점심 한 끼를 정성스럽게 배식하면서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길 기도했다. 남선교회는 세 차례 급식 봉사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두 차례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남선교회는 2007년부터 본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행사를 통해 지난 14년 동안 어려운 가정과 불우시설 등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 사랑의 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한나눔운동, 청년선교국 여름 국내선교와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에 매년 적극 후원하고 있다.

금년 말에는 어르비트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를 통한 젊은 몽골인들 선교를 위해 도시락과 토마토, 고구마 판매, 선교회비와 운영위원회 후원금 등을 모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선교회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스테반, 디모테, 바울, 웨슬레 167개 개체선교회가 부진한 곳 없이 모두 활성화되는 것이며 특히, 40대 스테반의 젊은 성도들이 광림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



달 70% 가까운 개체선교회와 10개선교구 연합모임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체선교회장들과 연합회장, 교구장들이 전심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또한 주일 11시에는 20여명의 남선교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중 기도회를 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주일 저녁예배, 수요치유의신학 예배 참석 캠페인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10월에는 스테반센터 선교회장 기도회, 12월에는 제6회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도 계획하고 있다. 박기연 장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모여 헌신하면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5

<은혜로웠던 순간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

사진은 소중한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 여름 광림교회에서 은혜로웠던 순간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찾아 간직하는 것이다. 호평산 기도회, 광림장학생선발,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 교회학교 여

름수련회 등 다채로웠던 지난 행사사진들을 광림홈페이지 광림뉴스에서 찾아보고 클릭해 보자. 다운로드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 고화질의 사진을 소장하고 싶다면 문화홍보실에 별도 문의시 이메일로 고화질의 사진을 받아 볼 수 있다.

박희윤 기자

교회행사 바로가기



해남감리교회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끼리 **선교장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장소: 사회봉사관 3층 여선교회사무실
문의: 02.545. 9624

EVENT1 10월 10일, 12일
루디아 푸드마켓
품목: 육개장, 곁절이, 피자, 라자냐, 진미채볶음

EVENT2 10월 17일, 19일
국장님 푸드마켓
반찬가게

EVENT3 10월 24일, 26일
에스더 푸드마켓
품목: 월남쌈, 밀크리, 종합선물세트

상시판매
12FW 최신유행 아이템들
품목: 가방, 스카프, 맨투맨, 신발,
주얼리(한정판매)
기증애장품전/건어물/젓갈/양념

*조기품절가능

하반기 청년부 총력전도 프로젝트 ‘뜻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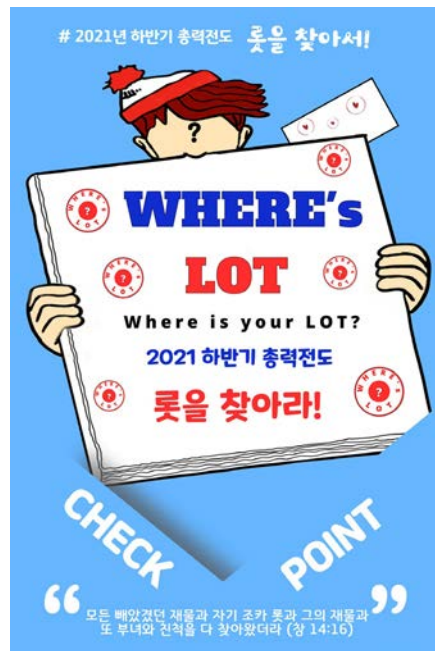
전도대상자와 함께 뮤지컬 ‘요한복음’ 관람

광림교회 청년부는 다가오는 10월 22일(금), 29일(금) 2회에 걸쳐 ‘뜻을 찾아라’는 주제로 하반기 총력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하반기 총력전도를 위해 청년부는 속회 내에서 함께 기도로 품은 VIP(전도 대상자)와 잃은 양(부전자)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 함께 복음으로 구성된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소원해진 청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예배)와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속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청년부의 각 속회는 2명의 VIP와 부전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청년부는 5주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관람하게 될 ‘요한복음’ 뮤지컬은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광야 아트센터에서 상영 중인데, 크리스천 뮤지컬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팀 ‘극단 광야’가 자체 제작하여 극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복음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크리스천 뮤지컬을 통해 10월 하반기에 있을 중간고사를 고려하여 직장인 청년들은 22일 금요일 저녁 시간, 대학생 청

1주차 ‘뜻을 찾아라’는 기도하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주차에는 속회 내에서 함께 ‘정시 중보기도’를 진행합니다. 속회에서 정시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며, 3주차 ‘기습작전’은 VIP와 부전자에게 초청장과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직접 찾아가 전달합니다. 4주차 ‘속회부터 회복하라’는 22일과 29일 뮤지컬 영상을 함께 관람하러 만나 교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day 5주차에는 10월 31일 총력전도 주일 5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날은 함께 각 교구별로 오랜만에 나온 잃은 양과 VIP를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년들은 29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반기 총력전도를 맞아 광림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 지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96포레 이윤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 평범한 일상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때 주일날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고민하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보라 하셔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로 생일파티 날짜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신의 장점을 적는 시간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적었던 것이 기억나고, 중학생 때 소외되는 친구를 향해 긍휼함과 절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가야하는 학원도 숙제도 많고 교회에 친한 친구도 없던 때에 무작정 갔던 고등부 첫 수련회에서 강하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매일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할 때에 찬양으로 평안함을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고, 처음으로 새 학기 새벽기도회에 나가면서 기도했던 사소한 기도제목들까지 다 응답해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공부에 집착도 심하고 불안한 마음도 심했던 나를 수능 보는 주까지도 주일성수와 사랑부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박치에 몸치였지만 찬양을 좋아했던 나를 아시고 위로를 할 수 있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몽골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팀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말도 안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속장으로서 섬길 때 기도로 부전자였던 속원들이 회복되고 헬퍼, 속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업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예배를 못 드려 힘들어했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랜 기도제목에 대해 잊지 않고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26살이 된 지금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윤경 지구장(청년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믿음의 행진 <Marching Day>

#광림교회 교회학교 #K.L.C.S #마칭데이 #Marchingday #믿음의행진 #전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대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시 68:7-8)

교회학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버츄얼 가족운동회 마칭데이(Marching Day)를 진행한다. 마칭데이는 교회학교 주관 비대면 ‘사이클링/걷기’ 대회로 코로나19로 경직되고 냉랭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와 온 가족이 함께 걷고, 달리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계획되었다. 신청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까지이며 선착순 300명만 신청을 받고 있다.

하단의 QR코드로 직접 신청하거나 부서 담당 전도사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마칭데이 참가 신청 후 10월 17일부터 교회학교 각 부서를 통해 참가 물품인 기능성 단채티, 3D마스크, 레이스팔찌를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은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걷기, 사이클링, 걷기와 사이클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의 구애 없이 참여 가능하며, 1Km부터 무제한까지 참가 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스트라바(Strava)앱을 설치하여 참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 참가 거리와 착용한 굿즈 인증샷을 광림교회 교회학교 인스타그램에 인증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20,000원이며 참가비는 굿즈 제작과 연말나눔행사를 위한 나눔키트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국 임재철 목사는 “교회학교는 맡겨 주신 아이들을 가족과 공동양육 한다는 마음으로 늘 고민하고 있다. 마칭데이를 통해 가정 안에서 가족간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총력전도기간 동안 마칭데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믿음의 행진

2021 하반기
Marching Day

온 가족이 함께하는 버츄얼 가족운동회

마칭데이는 교회학교 주관 비대면 “사이클링/걷기” 대회입니다.
수입금 전액은 연말나눔 행사에 사용됩니다.

신청 기간 2021.10.03(주말)~10.10(주말)
(선착순: 300명)

참가 방법

- 1) 참가신청 (1인당 20,000원)
- 2) 스트라바 어플 설치
- 3) 교회에서 참가 물품 수령
- 4) 대회 참가
- 5) 다양한 챌린지 참여하며 푸짐한 상품 획득!

신청 방법

- 1) QR코드 신청
- 2) 부서 담당 전도사, 선생님 통해 신청

광림교회 교회학교

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챌린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광림교회를 알리는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족과 보낸 시간과 발견들이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 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희윤 기자

예배, 거룩한 습관으로!

- 목회현장 -



김덕민 목사(광림서교회)

지난 7월, 코로나19 방역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여름수련회에 앞서 세웠던 본격적인 계획과 준비들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인 채 또 다시 기약 없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배뿐이구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전도, 성도의 교제는 방역단계의 변화에 따라 제한되고, 연기되고, 불가하게 되었지만 비록 인원의 제한은 있었지만 '예배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방 중에 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미진한 부분을 세워 갑니다. 2부 예배의 성경 봉독자를 세우고,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예배에 지구장님, 선교회장님을 중심으로 대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주일 저녁 예배팀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요 은혜의 밤 예배팀엔 중등부 학생이 지원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이제는 주일 4부 열린 예배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과 대화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점검하고 다시 세워가라는 것이 아닐까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예배, 그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예배뿐 아니라 있었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도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웃집과 차량에 전도 마스크, 전도 물티슈를 꼽고 있습니다. 소규모 인원이 공원전도, 주차장 전도를 진행하며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광림남교회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2021년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가정에 주신 심방 말씀은 여러고성 정복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옛세 동안 잠잠히 여러고성을 돌았듯이, 수험생 부모인 나 또한 그 시간을 함께 잠잠히 돌며 불안과 싸워왔습니다. 수시와 수능이 다가오자 나의 연약한 믿음이 불안으로 요동칠 무렵 하나님께서는 수시 특별새벽기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어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고성을 일곱째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

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특새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수시 기도회는 9월 27일부터 5일간 “자녀 교육의 성패는 기도에 있다”라는 선포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여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겸손함과 순종으로 남편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9)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여 왔음을 회개시키셨고, 내가 하나님께

서 계획하신 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새 마지막 금요 은혜의 밤에는 수험생들에게 안수기도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늦어 참석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해 빛된 자녀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되며, 세상 유희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중 제 마음속에 고3수험생인 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고성은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심을 사명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중보하는 부모 되길 소망합니다.

오성순 권사(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돌아온 교회학교 <트리니티>



광림서교회 교회학교는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4주간 교회학교 트리니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 트리니티 <성령의 열매>에 이어서 이번 가을학기에는 <십계명>(출 20:1-17)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는 하나님의 약속



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6학년 서동후 어린이는 “트리니티로 어려운

성경말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영상에 우리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흥미롭게 잘 볼 수 있었어요”라며 트리니티에 대한 긍정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진행될 트리니티를 앞두고 “트리니티를 통해 십계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만들어 보거나 써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구체적인 기대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학교 트리니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유혜준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자’



10월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광림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구장, 선교회장, 경조회 임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광림 세미나 하우스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회 참석 자체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게을리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였습니다. 여러 중보기도의 제목, 특별히 환우들과 경제적 문제,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황영재 목사는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기에, ‘위드 코로나’로 가야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만큼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지선경 기도회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0월 한 달간 한 명이상 전도하며 부흥의 시대에 동참하자 결단하였습니다.

조양식 전도사(광림북교회)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광림 영어예배> 축제는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꿈을 키워가는 곳

“말씀과 찬양과 교제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외국에서 사신 적이 있거나 해외 유학 중인가요?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이 있나요?”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림 영어예배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일 오후 2시 30분 웨슬레관 3층으로 오세요. 영어로 찬양하며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영어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26일 영어예배(위원장: 신성수 장로)의 현장을 찾아보았다.

해외선교의 꿈을 키우며

2003년부터 광림 영어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 성경 읽기, 열정적 설교로 전통적 감리교 예배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다.

“영어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 영어회화를 성경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싶은 분, 예배 진행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성도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

니다.”(신성수 장로)

“국가 해외 연수와 해외 선교활동으로 외국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 영어로 주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꿈이 되살아 났고, 이제 그 꿈을 광림영어 예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이성수 집사, 현 경기도 영어교사)

십년 전 영어예배 어린이가 찬양팀 리더가 되다

십년 전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방학이면 영어 예배에 나왔던 김희경 어린이가 이제 청년으로 자라서 영어 예배에서 막내로 영어로 사회를 보고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시간,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팀이 좋아요. 매주 영어로 예배드리니 영어실력의 향상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니 더욱 감사하구요.” (반주자 임소운 성도)

웃고 반기며 재미있게 교제하는 영어예배 키퍼들

성도들은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어울려서

웃고 반기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가 올 때 마다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어 예배의 신실한 keeper로 작은 것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신성수 장로, 찬양팀 연습은 ‘악자지껄’ 신바람이 났다. 찬양팀 테너 이성수 집사, 반주자 피아니스트 임소운 성도, 찬양팀 소프라노 이용주 권사, 플룻과 바이올린 연주자 이영숙 권사와 딸 이시은 성도, 그리고 홍옥연, 홍옥진 자매 등이 꾸준히 섬기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도 멈춤이 없는 예배 현장

코로나로 인해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다. 기쁨에 찬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목 마른 사슴’같이 듣고 있었고, 영어 설교 말씀을 출력한 종이 위에 단어를 찾아서 빼곡히 적어 놓은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참석인원이 다소 줄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매주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며 그분들에게 존경심과 하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

히려 영어예배 교우들간에 결속력이 생기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임소운 성도)

감리교 전통의 열정을 담은 웨슬리 목사의 설교

캐나다 웨슬리 목사님의 영어 설교는 광림교회 설교 전통인 ‘세가지 요점’ 틀 안에서 감리교 전통인 열정에 담아서 말씀 주제(롬 12:1~2 Navigating to the New Normal)와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말씀과 관련된 영어 이야기들이 맛깔스럽게 차려졌다. 즉, 관용어 표현(“You were born an original: Don't die a copy)과 히브리 단어(Avodah)와 미국 문화(Flower Children, 1968)와 영문학(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등 이야기가 살아있었다. 미리 설교 내용을 출력하여 나누어주기 때문에 예배와 복습이 가능하다. 영어예배부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리게 되길 기다리고 있다.

안미영기자



영어예배 성도들과 웨슬리 목사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15 이창우 장로(선한목자병원장)



내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캐나다 야전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의사 김선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주하는 흑백사진 한 컷. 이 사진은 의사의 사명과 본분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인의 본을 보여 주는 자기 공명 영상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김선도 목사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시다.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들을 자신의 몸보다 더욱 챙기는 분. 교회와 사택 사이를 걷기 좋아하셔서 걸음 수 마저 아는 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의사이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받았던 충격은 그분의 의사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 김선도

김선도 목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출신 목사다. 이 말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 번째는 의사에서 목사로 '거듭남' 분이라는 의미다. 김선도 목사의 생애 곳곳에는 수차례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 공산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남, 북한 군의관에서 대한민국 의무관으로 거듭남, 개체 교회의 담임자에서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 거듭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듭남의 체험이 김선도 목사의 생애에 가득하다. 두 번째 의미는 목회 전반에 걸쳐서 의사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관철된 '힐링 목회'였다는 점이다. 의정부 경찰병원 근무 당시에는 천막이던 의정부 감리교회를 철골로 건축했고, 대전 공군기술교육단 군복 재직 때에는 담임자가 없었던 영천감리교회를 찾아가 설교하고 건축했으며, 전농감리교회 시절에는 전도사의 신분이었으나 담임자로서 설교하고, 광림교회에 부임하여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로 세워 나갔다. 마치 주치의가 없는 곳을 찾아가 의술을 펼치는 의사처럼 김선도 목사는 쓰러지는 교회를 찾아가 다시 성장시키고 무너진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는 힐러가 되었다.

치료와 치료자, 사명과 사명자

김선도 목사에게 있어서 치료는 육체를 진료하고 고치는 의료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치료

는 곧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 태초부터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명자는 적극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긍정의 사람이다. 김선도 목사의 목회철학에서 적극성과 긍정성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흔히 노만 빈센트 필 목사나 로버트 솔러 목사의 긍정의 목회를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여 주는데 나는 이러한 견해가 편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목회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신 순간부터 이미 적극성과 긍정성은 김선도 목사의 몸에 배인 목회철학이었다고 봐야 한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힐링목회

김선도 목사의 힐링목회는 목회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구현되었다. 강단에서 선포된 치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방을 통해서도 영혼의 돌봄과 치료가 멈춤 없이 진행되었다. 힐링 목회는 교인 한 사람부터 속회와 전교회로 확장되었고, 교회가 움직이자 지역사회가 광범위하게 새로워지는 영향력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회성장학 세미나가 한국 교회 전 목회자들에게 전해지면서 한국교회가 몇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가 심화된 것이 한국 최초의 특별새벽기도회인 호렙산 기도회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전 교인이었고 그 자체로 거룩한 집회였는데 놀랍게도 각종 병으로 고생하던 이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참석하던 가정은 새벽 일찍 일어나며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성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기초의학과 임상목회

김선도 목사는 의학도로서 기초의학에 충실했다. 기초의학 과정을 거친 분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 하나의 생명이고 유기체이며, 해부학으로 봤을 때에는 뼈와 혈관과 근육과 피부가 연결된 구조물로 이해가 간다. 바울이 이해한 바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보고 목회를 하셨다. 여러 목회자들이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했다면, 김선도 목사는 자연과학자의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 있는 생명체를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았다. 2000년도를 전후해서 상담분야에서 임상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상목회협의회의 연세대 유영권 교수는 "김선도 목사님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상목회를 도입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고 증언하였다.

메디칼 교회론

김선도 목사가 구소련을 방문했을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며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 당시에 평생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후 2018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복음의 경로를 헤아리면서 말씀이 이동한 루트를 가슴에 담고 시연하고 계셨던 것이다. 김선도 목사의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교회론으로 치환시켜 본다면 '메디칼 교회론'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소화한 그의 눈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무신론과 다신론, 그리고 이단 종파로 가득한 사회 현실은 '페스트'에 감염된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심장이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혈관을 통해 복음의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사명의 전초기지다. 김선도 목사는 교회마다 병리적 상황을 먼저 진단하고 교회



▲1953년 유엔중군경찰병원 의무관으로서 캐나다 야전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의사 김선도

성장을 위해 처방하는 목회를 이끌었다.

성육신의 목회

김선도 목사의 목회와 설교는 성육신하는 목회이고 성육신하는 설교다. 성육신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원리이고 실체다. 성경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나는 의사로서 김선도 목사의 목회를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의료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다. 13개국의 16개 지역에 무료진료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가면서 현지 의료진도 양성하고 있다. 멈춤 없이 국경을 넘어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의사 김선도의 정신과 영성이 부단히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한다.

정리: 이득섭 기자



글서퍼드 재단의 의료봉사 현장에 참석하신 김선도 감독님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목사 김선도>
 목회의 기도왕 그리스도
 목회자 김선도입니다
 빛의숲서점: 02-2056-5771
절찬 판매중

